



집 떠난 갈매기 부부의 2월 이야기

- 콜롬비아, 에콰도르

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안하신지요? ^^

집 떠나 한 달 동안, 주님 은혜로 아프지 않고 좋은 시간 보내며 저희 부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년 열두달 중에서 2월은 항상 “벌써” 지나가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그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체감하는 것 보다 시간이 조금 더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네요...^^ㅋ

열흘 정도의 미국일정을 정리하고, 콜롬비아 보고타를 시작으로 드디어 남미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그리고 사람도 낯선 남미에서 출입국 부터 문제들이 생겨서 너무 어렵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마다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도움으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는 삶인 것을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보고타에서의 첫 시작은 좋은 만남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국적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저마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집을 나선 사람들과 밤 늦도록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새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행 시작하면서 꼭 이런 만남들을 기대했었는데, 조금씩 깊어진 대화 속에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되고 삶에 대해 이해함도 더 커진 것 같았습니다. 여행 하면서 조금씩 더 철이 드나 봅니다. ^^;;



보고타 외에도 콜롬비아 북쪽으로 가보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저희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국경 근처의 뽀빠얀과 이피아레스를 거쳐 간단히(?) 국경을 넘어 에콰도르에 왔습니다. 작은 다리만 건너면 에콰도르 더라구요.

에콰도르 첫 방문지는 오타발로였습니다. 주말에 열리는 남미 최대의 인디애나 전통시장이 유명한 곳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첫 캠핑장소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새어 나오는 은은한 텐트 불빛의 묘한 기분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속에서 맞이한 숲 속의 아침이 주는 짜릿함에 캠핑의 참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안데스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하는 생각에 여행을 허락해 주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 저희는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 와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아 불편하기도 하고, 이곳 사람들과도 조금이나마 소통하고 싶어 저희는 이곳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배워보자고 시작한 스페인어 수업이었는데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3주차는 마치는데 저희는 키토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적지 않은 과제에 매일 밤늦게까지 열공입니다. 은근히 스트레스가 있지만, 학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조금씩 느는 스페인어에 대한 재미도 쏠쏠하기에 열심히 하는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

키토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 교민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음식 나눠 주시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집에 초대도 받고 삼겹살에 김치찌개에 뜻밖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적게는 10년, 길게는 24년을 이 땅에서 살아오신 교민분들의 타국에서의 지난 시절과 현재, 그리고 한국에 대한 걱정과 기대 등의 이야기를 통해 묵혀있던 외로움과 그리움을 조금 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격려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그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해봅니다.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두고두고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배움들도 많습니다. 사실 여행을 위해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사람들이 준 정보들을 따라 온 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그들과 똑같을 수 없고, 예상 밖의 일들이 다른 한 편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삶이라는 긴 여행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정확한 리써치와 더 많은 준비보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 뿐이라는 다소 진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행은 여전히 길고, 이후의 저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여행은 아마도 더 길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여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부르심에 당당히 도전하며 살기를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이제 짧지만 반가운 봄이 오겠네요. 왠지 즐거울 것 같은 3월입니다. ㅎㅎ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 사랑합니다.

P.S. 3월에 열리는 WBC (World Baseball Classic) 에서 한국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곧 프로야구도 개막하겠네요. Giants 도 화이팅! 2



저희의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 ✓ blog.naver.com/hearngo0924
- ✓ [facebook.com/0924hellomydream](https://www.facebook.com/0924hellomydream)
- ✓ e-mail: hearngo0924@naver.com

계속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